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8 | MAY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5월호 / 통권 288호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88 | MAY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티토에게 보낸 서간
전례와 생활	18 위기에 선 혼인성사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4 기도학교 30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8
신앙과 삶	34 게으름과 거리두기
듣다 읽다 보다	38 고전음악을 듣다 4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61 후원방법 및 소식



### THE COVER

파리외방전교회 정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후 경당



‘파리에 가면...’

프랑스 파리 7구, 세계 최초 백화점인 르봉 마르세(Le Bon Marché) 건너편, 뤼드박(Rue de Bac) 거리 128번지에는 1658년에 설립된 파리 외방 전교회(Missions-Étrangère de Paris) 본부가 있다. 파리 시내 7구의 상업지구 한복판의 화려한 백화점과 카페 거리 사이에 있는 외방전교회는 이곳이 종교시설임을 알 수 있는 정문 위 성모상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본부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당(Chapelle Notre Dame de la Médaille Miraculeuse)을 방문하고도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는 한국 순례객들도 많다. 그런데 사실 외방전교회 본부 정원은 파리 시민들이 일생에 한 번은 구경해 보길 바라는 곳이다.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의 정원이자 파리에서 손꼽히는 정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 본부에 사는 신부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정원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순례객들 가운데서도 파리 외방전교회를 방문했었다고 말하지만, 정원을 둘러보았다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

이 정원에는 한국 교회와 관련 있는 2개의 기념물이 있다. 하나는 정원의 북쪽 끝 모서리에 있는 팔각정 모양의 순교자들의 모후 경당(5월호 표지사진)이고, 또 하나는 2003년 명동 신자들이 성인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열정을 기리기 위해 제작, 기증한 한국 순교성인 현양비(5월호 편집장 글 사진)이다. 순교자들의 모후 경당은 선교사로 파견되는 사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가족,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소였다. 또한 선교지에서 파견된 선교 사제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파리에 남아 있던 사제들과 신학생들이 이곳에 다시 모여 테 데움(Te Deum·감사의 찬가)을 불렀던 곳이다. 오늘날에도 선교 사제를 파견할 때면 파견 예식을 이곳에서 거행한다. 이 성모 경당을 자세히 보면, 경당 가운데에는 성모자상이 있고 양옆으로 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성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중엔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시성한 앵베르, 모방, 샤스탕 등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 사제 10분의 이름과 성 김대건 신부의 이름도 보인다.

코로나19로 해외 성지순례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늘길이 자유로워져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파리의 외방 전교회 정원에 꼭 한 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외방전교회 지하의 박물관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시스티에라교회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김대건(5) : 김대건의 부제시절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대건 신부의 10번째 서한 1845. 3. 27\_ 출처: 한국천주교신교사박물관

페레올이 제3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면서 김대건과 최양업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지난 겨울에 저는 안드레아 신학생에게 중국인 신자 한 명을 매동하여 조선의 북쪽 지방 전체를 탐색하라고 보냈습니다. ... 변문(Pien-Men)을 통한 조선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모험이 되겠지만 북쪽 길로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신)... 만일 금년 말에 조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안드레아를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그때에 그

는 안드레아 신부가 되어 있겠지요. 삼위일체 대축일에 저는 그 청년들을 차부제품으로 올리려고 합니다.”(페레올, 1844. 5. 18)

위의 내용 중에 변문이라 하면, 가장 일반적인 사행(使行)길로 압록강을 건너는 ‘서북로’를 가리킨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육로를 통해 압록강 위의 얼음을 밟고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위의 편지에서 ‘북쪽 길’은 김대건이 훈춘을 통해 경원까지 들어갔던 험한 길로 ‘동북로’를 가리킨다.

두 신학생은 그해 겨울, 늦어도 1844년 12월 10일 이전에 부제품까지 받았다. 페레올 주교는 토마스 와 안드레아에게 부제품까지 수여하고는 교회법적으로 만24세를 넘기지 못하여 내년을 기약하고 사제품까지는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안드레아 부제를 데리고 변문을 향해 갔다. 페레올 주교는 변문 가까이에서 신자인 김 프란치스코를 만났

을 때, 마음이 기뻐서 두근거렸다고 고백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었다. 그러나 일곱 명의 신자 가운데 네 명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페레올 주교에게 줄 조선옷을 가져오지 못했다. 페레올 주교는 하는 수 없이 안드레아 부제만을 입국시키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안드레아는 페레올 주교의 강복을 받고 조선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김대건(5) : 김대건의 부제시절

을 향해 출발하였다.

김대건 부제는 육로를 통해 들어가 1845년 1월 15일에 한양에 도착하여 ‘돌우물골’(石井洞)에 머물렀다. 그동안의 긴장과 여독으로 보름간 증병을 앓았다. 그는 두 명의 신학생을 지도하면서 열 번째 서한을 작성하여 그간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리브와 신부에게 보냈다.

“눈이 사방에 깊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너무나 지루하여 묵주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둠에 잠겼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의주의 어느 산골짜기)을 떠나 읍새를 향해 가는데, 발소리마저 없게 하려고 신발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길도 아닌 험한 곳을 달려갔습니다. ...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님(고 우르술라)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미 우리가

마카오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귀국하는 대로 즉시 잡아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중국 강남성(江南省)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러나 신자 뱃사공들에게는 미리 겁에 질릴까 염려되어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제가 항해술이 능통한 자로 그들을 설득시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 (추신) 조선에서는 어린 아기들의 대부분이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으로 죽어 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어 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열 번째 서한 1845. 3.27)

김대건 부제는 발소리까지 조심하느라 눈길에 신발을 벗고 걸으며, 힘겹게 조선의 밀사를 만나 한양 돌우물골에 마련한 집에 도착했다. 그는 병치레를 하고 간신히 기운을 회복한 후에 바닷길을 통한 입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8년간 헤어졌던 어머니에게도 혹은 시나 위험이 있을까봐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스승 신부님께 요청하였다. 조선에서 두창(痘瘡)

으로 알려져 있는 천연두는 정약용의 『마과회통』에 인두종법(人痘種法)에 의한 예방법이 소개된 이후에도 계속 역병으로 해를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김대건은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을 요청한 것이다.

김대건은 4월 6일과 7일 연속해서 리브와 대표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기해박해의 세 선교사들이 신자들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 자수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들의 순교가 그리스도의 모범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하여 넘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향해 가셨고, 신부님들은 주교님께 순종하시어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떠나가셨고, 신부님들은 최후의 만찬으로 미사성체를 봉헌하고 떠나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신부님들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최고의 형벌에 내맡기셨습니다.”(열한 번째 편지, 1845. 4. 6.)

바로 다음날 김대건은 다시 리브와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해박해의 정치적 배경인 벽파와 시파를 이야기하였고, 현재는 박해의 소강기로 신자수가 1만여 명은 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강남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병약한 몸을 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부제는 14세의 학생 두 명을 가르치며, 또 다른 두 아이를 신학생으로 선발하였다고 하면서 조선 종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냈다. 그 가운데는 선교사들(앵베르, 모방, 샤스타)의 유해와 그 유명한 조선전도(朝鮮全圖)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대건 부제는 4월 30일 현석문 등 11명의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김대건(5) : 김대건의 부제시절

사공과 함께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5월 28일 오송구(吳淞口)를 거쳐 6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김대건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우들은 바다를 보고 아주 놀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에 누구든 질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 교우들은 사흘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며 ‘이제는 끝장이다. 살아날 수 없을거야.’라고들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분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였습니다. ... 저도 신병 중이었지만 삶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서 일을 하며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으뜸 사공으로 채용한, 이미 예비 신자인 외교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김대건의 열여섯번 째

서한, 1845. 7. 23)


김대건 부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자신도 작은 배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신자들을 설득하여 중국 강남을 향해 출항하였다. 폭풍우 속에서 상분 하나에 의지하여 계속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신덕(信德)과 용덕(勇德)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리고 흑시나 모를 위험 속에서 예비신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강남 땅 해안까지 도착했으나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산둥(山東)배 한 척을 만나 협상 끝에 상해까지 매달려갔다.

오송(吳淞)에 도착하여 영국 영사관을 찾아 페레올 주교에게 알리는 한편, 예수회의 고틀랑 신부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고틀랑 신부의 얘기를 들어보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김 안드레아가 조선 정크로 산동의 중국 정크라고 하는 배에 끌려 어제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배에

12명(부제 포함)이 있었는데 모두 교우들입니다. ... 김 안드레아는 판리들에게까지 위협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뿐더러 페레올 주교가 미리 기별해 놓은 영국 영사가 안드레아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그를 기꺼이 보호하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페레올 주교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리브와 신부에게, 1845. 5.25)

고틀랑 신부는 안드레아 부제의 담대함에 놀랐다. 그리고 예수회 장상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에서 그가 타고 온 배에 대해 이야

기했다. “...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우리 해군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것은 정말로 너절한 영터리 배였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버지의 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제는 어느날 교우들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바다로 간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죽석의 선장’은 역시 항해에 무지한 선원들과 함께 그의 빈약한 작은 배를 타고 대양으로 나갔습니다...”(1845.7.8., 「전교회지」19권) 

묵상

나룻배를 끌고 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선교사의 해로(海路)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만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는지요?

## 티토에게 보낸 서간

# 사목자의 자질과 의무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1. 티토는 누구인가요?

티토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르나바와 함께 예루살렘로의 여정을 묘사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갈라 2,1) 이처럼 티토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사도 바오로와 동반하였고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위탁 받고 코린토로 파견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에서 언급되는 티토는 개종한 그리스도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강요 받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갈라 2,3) 티토는 특히 가난한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 헌금 모으는 일을 맡아서 바오로의 대리자로 코린토 교회에 파견되어 티모테오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티토는 후에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크레타 섬의 첫 번째 주교입니다. 티토는 크레타의 고르틴에 묻혔고, 그의 머리는 후에 사라센이 832년에 크레타를 침공했을 때 베네치아로 이송되어 산 마르코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 2. 티토에게 보낸 편지도 사목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서간과 함께 티토에게 보낸 서간도 사목서간에 속합니다. 티토는 사도 바오로와 코린토 교회 간에 야기되었던 불화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로 바오로는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바오로는 티토와 함께 크레타 성에 체류하다가 티토를 그곳 주

교로 임명한 후 육지로 돌아가서 니코폴리스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했습니다.(티토 1,5) 서간의 내용도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주교 직무에 관한 훈시와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 3. 교회 지도자의 자격

교회 지도자의 자질, 즉 사도가 갖추어야 할 품성을 이미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 (티모 3,1-7) 언급한 바 있는데, 티토에게 보낸 편지도 (1,6-9)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선 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받은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는 신자들에게 각자의 신분에서 해야 할 본분과 도리를 일깨워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제로서 공식예배 집전과 자기 후계자들을 세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를 선정할 때도 생각이 바르고 솔직, 신중하며 음주와 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가정생활도 모범적인 사람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품행에 있어 평판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티토 1,7-9)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생전에 자기가 친히, 또는 서간을 보내거나 대리인들을 시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다스렸습니다. 교회마다 일단의 원로들이 있어서 질서 잡힌 행정을 수행하는 사목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자리를 비우면 원로

들 중의 한 명이 사도의 책임을 대신 맡았습니다. 후대에는 최고 지도자를 감독(주교)의 칭호로 불렀고, 나머지 원로들은 그냥 원로(사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세기 말엽에 가서야 교회는 감독을 교회의 책임자로 하고, 그 밑에 원로들과 보조자(부제)들을 두어 보필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여자보조자(여자 부제)도 있었는데, 자선사업, 세례를 준비하는 여자와 소녀들을 교육하는 직책을 맡은 나이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 4. 사도 바오로의 질책

사도 바오로는 크레타 신자들을 언급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받은 자들(유다 그리스도교인) 가운데에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 놓고 있다고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토에게 크레타 교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유대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도록 하기위해 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분을 부정하면서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라 비난합니다. (티토 1,10-16 참조)

#### 5.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티토 2장)

사도 바오로는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 즉 하느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고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상안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절제에 대해 강조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추라고 지적합니다. 공동체에서 말이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분열과 잘못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앞서 인성이 훌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6. 타인에 대한 태도(티토 3장)

사도 바오로는 티토에게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합니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온유하게 대하라고 권고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신자가 된 후에는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선행이므로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 선교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후원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행입니다. 선교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속적인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더욱 성심을 다해 훈련시키고 파견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



## 한달 동안 성경읽기

천재주

둘째주

세째주

티토에게 보낸 편지 1장

티토에게 보낸 편지 2장

티토에게 보낸 편지 3장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티토에게 보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사도 바오로는 티토에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어디에 남겨두었습니까? (1장)
- ② 영원한 생명의 ( )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 )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1,2)
- ③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1,3)
- ④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6)
- 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 )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 )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2,7-8)
- ⑥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언급합니까? (2,3)
- ⑦ ( )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2,13)
- ⑧ 어리석은 논쟁과 ( )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3,9)
- ⑨ 무엇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까? (3,10)
- ⑩ 우리 신자들은 무엇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까? (3,14)

## 교우회 소식

### 우리은행 교우회

우리은행 천주교 교우회 “베레쉬트”는 우리은행 가톨릭 신자 직원들의 친목과 형제애를 두텁게 하고 월례미사를 비롯하여 신앙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은행 공동체에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구 성 : 우리은행 가톨릭 신자 438명  
(회장: 이미영 프란치스카 / 총무: 기애숙 로사)
- 지도신부 : 백충열 요셉 신부님
- 활 동 : 매월 직장미사,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장봉사

## 위기에 선 혼인성사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환영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만 되면 많은 미혼자를 불편하게 했던 결혼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혼인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참에 비혼자로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갈수록 결혼은 부담스럽고 출산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삶, 이타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이유에 밀려나 버린 혼인의 귀하고 깊은 의미를 돌아보면 그래서 더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 타인을 위한 봉사의 성사

결혼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인생의 특별한 단계로 삼고, 그에 상응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도 결혼을 7성사의 하나로 삼고 높은 품위와 가치를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가톨릭교회교리서」는 혼인성사가 타인을 위한 봉사와 하느님 백성의 형성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사임을 말합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성사들은 개인적인 구원에도 이바지하지만, 그것은 타인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느님 백성의 형성에 이바지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34항)

### 자녀 출산과 신앙교육

가톨릭교회의 혼인과 부부 사랑은 본성상 생명의 전달과 신앙교육을 지향합니다.(사목헌장 48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는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부터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입니다.”(「사랑의 기쁨」 80항) 자녀와 더불어 부모는 가정 교회를 이루고, 이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일차적인 권리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 사랑은 그 자체로 곧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도덕적, 영적 교육이 됩니다.

### 사랑과 일치 의 표지

교회 헌장에서는 혼인성사를 통해서 사랑과 일치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 성사를 통해서 이루는 가정이 사회적 역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풍요로운 사랑과 일치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혼인성사의 힘으로(에페 5,32 참조), 그리스도인 부부는 부부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준다.”(교회헌장 11항)

이처럼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계약의 효과적인 표징 곧 성사가 되고 그 은총을 나누어줍니다. 부부의 상호적 유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신자 부부가 상호 존중과 상호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자체에서 비롯한 나뉘 없는 사랑으로 자신들의 결합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혼인성사에서 혼인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 합의입니다. 두 사람의 자유롭고 진실한 합의의 표명을 통해서 두 사람의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인은 정혼자들의 서약으로, 곧 정혼자들의 서로 자기를 자유로이 주고받는, 두 사람의 취소할 수 없는 합의로 이루어진다.”(혼인성사 지침 2항)

이 자유로운 합의의 교환은 혼인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누구도 이 합의를 대신할 수 없고, 폭력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자유로우면서도 책임 있고 굳은 의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약에 담긴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마음에 새긴 후에 비로소 예식 안에서 발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합의가 신랑과 신부에 의해 선언되면 그것을 주례자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6-1632항 참조)

###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혼인성사를 받으면 부부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한번 맺어진 혼인은 절대로 풀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혼인은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과 부부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혼인의 ‘단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인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부부 사랑은 본질상 절대적인 신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혼인성사에서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합의를 할 때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약속을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의 굳은 의지와 하느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 전례적인 삶과 혼인의 삶

예수님께서서는 성찬 제정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어 아남네시스(anamnesis)를 여기에서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에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나를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내놓으신 사랑의 제사를 거행하고, 실제 삶에서도 이 희생의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교회는 전례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혼인의 삶 역시, 마치 이렇게 전례를 거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억과 현재화를 요구합니다. 함께하고 사랑했던 순간, 아픔을 나누었던 순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그때의 마음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순간처럼 지금도 그 사랑의 불꽃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념일을 챙기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혼인의 표징으로 함께 교환한 반지에 담긴 의미, 즉 “일생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 서약입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만 하면 언젠가 그 샘은 마르고 맙니다.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비가 땅을 적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함께 땅을 적셔야 합니다. 이는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동시에 사랑의 사도로 불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요청입니다. 순탄하지 않은 이 작업을 함께해나갈 때 하느님의 은총은 그 샘을 분명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마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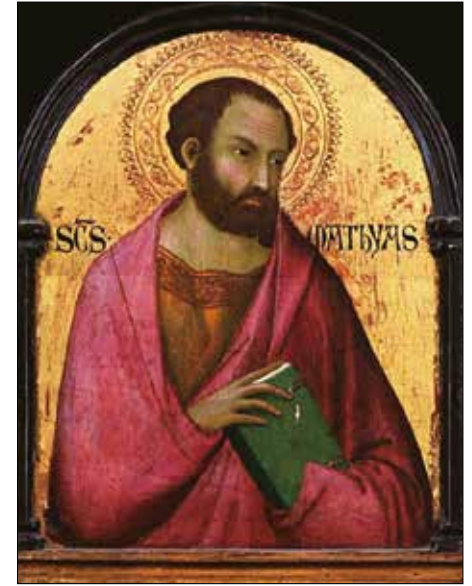
St. Matthias (축일: 5월 1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십자가 수난으로 공백이 생긴 사도 유다의 자리에 성 마티아가 새롭게 선출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15-26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사도를 선발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 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사도 1,24-25). 그래서 마티아가 새롭게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필요한 이를 뽑으시는 분이시기에, 마티아 사도의 이름 안에 있는 뜻대로 그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과연 마티아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마티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오’와 같은 히브리어 어원을 사용합니다. 마티아라는 말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מַתְתִּיָּהוּ(마타타후)라고 표기합니다. 이를 두 부분으로 분할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מַתַּת(마타트,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주다, 허락하다’라는 נָתַן(나탄)의 분사형으로, ‘주어진, 허락된’ 뜻이 되어서 결국에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정의함)과 יְהוּ(야후, 야훼 하느님을 뜻하는 יהוה야훼YHWH의 약칭을 지칭함)의 합성어가 됩니다. 따라서 해석하면,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또는 ‘야훼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신을 하고 사도 1명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새롭게 사도가 된 ‘마티아’ 사도의 이름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이며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티아라는 이름 속에는 그 자신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



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마티아 사도에 대한 언급은 위에서 본 사도행전의 새 사도 선출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도에 대한 전승은 유일하게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 주교(기원후 263-339)가 쓴 ‘마티아 전승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법에 대하여 아주 박식하며, 명민한 영혼을 지녔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데 있어서 예리하며, 선견지명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의 설교가 기쁨을 주며, 여러 기적을 일으키며,  
부활하신 분의 증인인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올려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렸다.”

-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 주교 -

## 기도 학교

# 성체조배

차동욱 시몬 신부\_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지난 시간까지 ‘최고의 기도로 만남’인 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사의 은총과도 연결되는 ‘성체조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감실이 있지요? 제대와 십자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드러내는 시설이자 성물들이지요. 특별히 성탄 시기에는 예수님의 구유도 놓여 있습니다. 구유를 보며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특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체 조배에 대한 말씀은 이 구유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구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누여진 요람입니다. 말의 먹이인 여물을 담는 통이죠. 그래서 크기가 아기가 누여질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옷가지와 지푸라기를 깔아서 나름 폭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순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였습니다.(마태 2,1-12) 이들의 경배(敬拜)는 오늘날의 조배(朝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라고 말할 때 ‘조배(朝拜)’의 한자말 뜻은 아침에 뵈고 절하는 모습에서처럼 ‘문안하다’, ‘만나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자주 만나고 문안하며 공경하는 태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敬拜)’는 ‘공경하여 절하다’는 뜻입니다. 전례적으로 구유 경배때 경배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동방박사의 경배처럼 정기적이기 보다는 어느 특별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공경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체 앞에서 반복적으로 경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조배가 됩니다. 그래서 동



방박사들의 경배가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성체조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희랍어로 ‘마고스(μαγος)’라고 일컬었던 동방박사(東方博士)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곁에서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조언하던 점성가들입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별과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교리와 믿음은 아니어도 늘 하늘을 향하던 사람들이기에 천체의 조물주이자 관리자이신 하느님의 기운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성탄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한쪽에 구유가 놓여있고, 구유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정은? 그리고 이들의 희망은 어떠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일생이 세상 이치를 통찰하는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만한 경력의 나이가 든 모습이었겠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다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는 예수님과 평생 그 자리에서 동반하고자 왔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 왕도 아닌, 아직 자라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갓난아기인 그분께 대한 이 경배를 통해서 얻어갈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들의 경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머무름**입니다. 연약한 아기 앞에 머무름,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하느님 앞에 머무름.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삶을 뒤바꿔줄 머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채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희망과 영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신념에 대한 확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어 놓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선물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어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내어드림입니다.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지와 정신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걱정과 두려움까지도 비워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자리를 위해 내 자신을 비움, 이것이 내어드림입니다.

세 번째는 **모셔감**입니다. 만나고 헤어지지만 헤어짐이 아니라 모

셔감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큰 뿌듯함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신의 숨결을 느꼈으며, 이분이야말로 저 세상까지 지배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영원의 세상까지 희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혼 안에 모시고 돌아간 것입니다. 평생 영광스럽게 기억할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머무르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가는 동안 잠만 주무셨겠지요. 하루 종일 자야하는 갓난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실을 떠올려 봅시다. 성체 앞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말이 없이 성체로 계시지만 당신을 찾아온 우리를 똑똑히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거기에 많은 속삭임과 격려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실제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앞에서 똑같이 머무르고 내어놓고 채워나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기였던 구유의 예수님이 놓여진 자리에서 바로 성당 중앙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생애의 대부분을 채워 나가시는 모습이 제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많은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자비를 전하시며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주 드셔야 했겠습니까? 사천 명,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기까지 제대는 예수님의 식사 공동체를 드러내고 예수님 당신을 성체로 내어주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실현하게 만들어 줍니다. 당신을 본 것은 하느님을 본 것이라는(요한 14, 9)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신비를 누립니다. 제대에서 다시 시선을 들어 높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제대’로 상징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마르 10,45)’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으로 진짜 죽으심으로써 가짜나 상징이 아닌 진짜 대속을 치루셨습니다. 또한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히브 10,14)’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단 한번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 영원히 유효한 용서의 조건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는 ‘감실(龕室)’에서 그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체로 감실 안에 고요히 머무십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의 일부분을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보이지 않느 하느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자유를 마련하시고 성체로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모습도 마다않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빵 한조각의 모습도 마다 않는 하느님의 역사가 이제 성체로서 감실 안에 실현된 것입니다.

결국 구유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일생은 제대와 십자가를 거쳐 감실에 이르렀습니다. 구유는 감실이 되었고 아기 예수님은 성체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의 그 첫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이 없으신 듯 해도 사실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성체조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구유), 그분의 나눔을 기억

하고(제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십자가),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감실)입니다.

자주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를 하도록 합시다. 우선 고요하고 편안한 숨 가운데서 막상 구유가 없을 때라도 구유를 떠올리며 제대, 십자가, 감실의 순으로 시선을 돌리며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봅시다. 그렇게 만나는 예수님의 일생 앞에 먼저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앞에 찬미와 감사의 마음으로 고요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어드리십시오. 드릴 것이 있다면 모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비울 것이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되는 모든 것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의 힘과 위로를, 무엇보다 당신을 내 마음에 채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성체조배입니다.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8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이루다 논란과 인공지능 윤리

얼마전 ‘이루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챗봇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챗봇(chatbot)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인간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폰의 ‘시리’(Siri)나 갤럭시의 ‘빅스비’(Bixby)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챗봇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주거나 음성을 통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 주기도 하는 편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의 경우에는 대화 가운데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나 차별 발언을 쏟아내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루다의 사례는 ‘인공지능’이라는 편리한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과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편리한 도구일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그 기술은 인류에게 혜택이 아닌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이미 우리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번역이나 네비게이션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나올 것입니다. 자율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의 진단을 대신할 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자

유자재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루다 논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이루다 챗봇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들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루다가 성착취,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두 가지 태도 모두 인공지능을 인간의 대체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요제프 바이첸바움은 현재의 챗봇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단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엘리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와 대화를 하던 사람들은 엘리자에게 ‘감정적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엘리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상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자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명한 정신과 의사와 과학자들까지 엘리자가 심리치료를 대신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제프 바이첸바움은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사실 망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계를 인간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인간을 기계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심리 치료사들을 정보 처리기, 즉, 기계에 불과한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❶ 이 사례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을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술과 인간을 분명히 구분하고 인공지능을 분명한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6가지 원칙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인공지능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성찰하여, 2020년 2월 28일, 마이크로 소프트와 IBM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Rome Call For AI Ethic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먼저 “인간 존재와 본성이 [...] 결코 인간일 수 없는 과학 기술들에 의해 점점 대체되기 보다 오히려 지지받는다” 시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윤리, 교육, 권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과 사용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의 마지막에는 인공지능의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 갖춰야 할 6가지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 투명성(transparenty): 원칙적으로, AI 시스템은 설명 가능해야 한다.
- 포용성(inclusion): 모든 인류의 필요가 고려되어, 모든 이가 이익을 얻고 모든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 책임성(responsibility): AI의 사용을 고안하고 배치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일해야 한다.
- 공정성(impartiality): 공정성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며, 편견을 가지고 만들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신뢰성(reliability): AI 시스템은 믿을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security and privacy): AI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사용자의 privacy를 존중해야 한다.

### 인간됨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과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인간 본성의 변화입니다. 유전공학 기술은 실제로 인간의 본성에 직접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향상된 인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어떤 미래학자는 인간의 ‘죽음’이 사라지는 시기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함께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간은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때보다 ‘무엇이 참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기술의 발전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실현하는 길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❶

❶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322~331쪽.

# 게으름과 거리두기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춡고 비오는 주일 오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모처럼 편안히 쉬고 싶은 요셉은 '성당에 가야하는데... 미사시간에 늦으면 안되는데...' 하며 꾸물거리다 결국 교중 미사 시간을 놓쳤다. '이왕 늦었는데 평화방송 미사로 대신 할까? 그냥 저녁 미사 갈까?' 고민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요셉은 요즘 미사참례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일 이외에는 바쁘다, 피곤하다 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계획한 일을 나중에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덕의 실천조차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이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거리두기로 굳어질까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성당을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찌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게으름을 피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해 보았다.

### Question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나의 게으름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 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나태, 게으름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근면(부지런함)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애덕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 심각하고 급속한 사태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추이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으로 무기력해져 순전히 개인주의 윤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 더 잘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관대한 견해를 내세우면서도 언제나 실제로는 사회의 요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간계로 정당한 세금이나 사회에 대한 다른 의무의 회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들, 예를 들어 보건 위생법이나 차량 운전 법규 등을 경시하며, 자기가 이러한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수록 더욱 분명히 인간의 임무도 개별 집단을 뛰어넘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각 개인과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사회적 덕을 닦고 그 덕행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필요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참으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의 창조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사목헌장 30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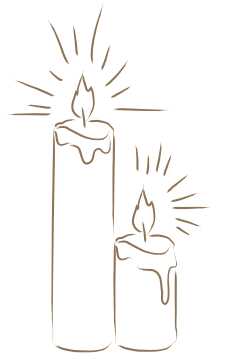
•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무관심은 하느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랑의 힘을 부인하는 것이다.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냉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역동적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영적 게으름(acedia)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증오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죄를 엄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 저주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2094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슈베르트의 두 얼굴 -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에 감추어진 고통의 이면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작고 동그란 안경을 쓴 슈베르트가 친구들에 둘러싸여 함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은 ‘슈베르티아데’라 불리며 우리에게 낭만 그 자체로 보이지만, 우선 이번 호에서는 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슈베르트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슈베르트는 유전적(최근 음악학자의 연구로 여동생과 모계혈통에서 발견) 조울증에 시달렸다. 조증과 우울증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조울증은 의학용어로는 ‘양극성 장애’로 불리며 유전적 특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신체적 질병이 더해지면 더 증폭된다. 슈베르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는 만년에 매독 증세가 발현될 때면 줄곧 착란증세를 보일 정도여서 사실상 정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가 사망하기 한 해 전 1827년에도 조증에 해당하는 3월과 4월에는 밀러의 연작시 ‘겨울나그네’의 첫 12편의 작곡에 열중하였지만(밀러가 12편씩 나누어 발표하

였기 때문에, 당시에 슈베르트는 뒤 12편이 있는지 몰랐었다), 곧 우울증과 매독 증상의 발현과 겹치면서 폭음만 거듭하다가, 밀러의 뒤 12편을 발견하고는 우울증 속에서 후반부 12곡까지 완성하였다(D911). 아마 스스로 연주해 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이 연가곡 ‘겨울나그네’의 전반 12곡과 후반 12곡은 너무나 다르다. 전반부 12곡을 쓰던 슈베르트는 기분도 밝고 사람과 흔쾌히 어울렸지만, 후반 12곡의 슈베르트에는 홀로 내면에 침잠하여 격렬한 감정이 요동친다. 성악의 선율선과 피아노 반주 사이의 관계가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달라진다. 후반 12곡의 성악 선율은 피아노 반주와 분리된 채 내면으로 파고들어 방랑한다. 예를 들면 14곡 ‘희끗한 머리(Der greise Kopf)’, 16곡 ‘마지막 희망(Letzte Hoffnung)’, 24곡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의 피아노 반주는, 저음역의 화음 아니면 고음역의 화음으로, 성악 파트와 멀리 동떨어져 포진되어 있다. 더욱이 피아노의 화음반주는 적은 수

Franz Schubert 1797-1828  
Die Winterreise Cycle D.911 on 24 poems by Wilhelm Müller

1 CD/ 1h 13mn 2s  
HMC902066/ March 2010

Werner Güra - Tenor (Vocal), Primary Artist  
Christoph Berner - Piano, Primary Artist



의 음표만으로 절제되어 황량한 공허감을 연출한다. 당시 쇼버의 집에 얹혀살던 슈베르트의 호출을 받고 ‘겨울나그네’ 24곡을 처음 접했던 친구들은 그 황량함과 우울함에 망연자실하였지만, 단지 쇼버만이 간신히 5곡 ‘보리수(Lindenbaum)’을 제외하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한 감상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달리, 울증이 사라진 그 해 12월에는 ‘피아노 삼중주 2번 Eb장조 D929’를 작곡하여, ‘겨울나그네’의 내향성에서 벗어나 삶의 투지를 보여주는 대비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명한 그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리듬으로 장례행렬인지 방황하는 걸음인지 묘한 분위기 속에서, 피아

노의 왼손 파트는 첼로가 맡아야 할 베이스를 맡아 첼로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 자주 주선율의 노래를 한다. 슈베르트가 첼로를 편애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미 그의 수많은 가곡이 첼로의 음역과 비슷한 하이 바리톤을 염두에 두고 썼다. 매독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썼던 ‘미완성 교향곡’에서 조차 첼로의 제주(齊奏)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첼로의 따뜻한 음색과 음역이 황량한 세상에 내팽겨친 작곡가에게는 각별한 호소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병마와 고통에 시달리던 생애 마지막 해 1828년 사망 직전 9월에 슈베르트는 대단한 걸작을 순식간에 쏟아내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최후의 피아노 소나타 세편 C단조(D958), A장조(D959), Bb장조(D960), ‘백조의 노래’에 들어갈 가곡 몇 편, 현악오중주 C장조(D956)가

그것이다. 그러나 삶의 투지 속에도 틈새로 간간이 애수가 보인다. 자신의 묘비에 악보를 새긴 음악가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현악오중주는, 슈베르트가 아끼는 첼로를 하나 더해 오중주가 되었다. 제2바이올린, 비올라, 제1첼로가 선율과 반주를 유지하고, 제1바이올린과 제2첼로는 다양한 장식을 더한다.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이 자신이 죽을 때 오중주의 느린 악장을 들려달라고 했다. 슈베르트는 2악장 아다지오에서 선율선 대신 화음으로 노래하더니 중간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랫동안 끓여왔던 - 그냥 지나쳐가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다 - 격정과 슬픔을 일시에 휘몰아치더니 거의 탈진하듯 피아니시모로 사라져간다. 이열치열이라고 할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는 이 악장은 맘껏 울고 싶은 우리를 대변해준다. 최후의 피아노 소나타 Bb장조(D960)에서도 피아노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일곱 마디 진행될 무렵 저음에서 불길하게 요동치는 트릴도 고독한 방랑자의 슬픔이리라.

이제 ‘슈베르티아데’의 많은 친구들이 그의 생애에 거론되는 이유를 보자. 1797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슈베르트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노력으로 음악과 인문교

육을 잘 받아, 1808년 궁정 예배당의 신규 합창단원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동시에 시립 기숙학교(Stadtkonvikt)의 장학생이 된다. 멋진 학교 제복을 입는 130명 정원의 엘리트 교육기관 시립 기숙학교는 1803년 프란츠 황제의 명에 의해 건립되었다. 기숙학교에는 김나지움 학생과 빈 대학생이 다수였지만, 8명의 궁정합창단원이 있었다. 슈베르트는 합창단 소프라노를 맡고 기숙학교 관현악단에서는 제2바이올린을 맡았는데, 이 때 학생음악감독이 요제프 폰 슈파운(‘폰’은 귀족 가문, 당시 법대생으로 9살 위)이었다. 그는 이듬해 법대를 졸업하며 기숙학교를 떠났지만 슈베르트와는 평생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늘 학교 강의보다는 점점 작곡에만 몰두하던 슈베르트는 1812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급생들의 학생운동사건을 계기로, 김나지움 8년 과정을 5학년(1813년)으로 중퇴하고, 사범학교(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로 전학하였다. 변성기로 합창단 소프라노에서 물러났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기숙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순전히 자발적인 중퇴라고 봐야 한다. 10개월의 교사훈련과정을 마치고 1814년 9월 교사자격증을 취득, 1814년 11월부터 1816년 9월까지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을 교사로 근무하였지만 음악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까

지 이미 360곡의 가곡을 썼는데, 그가 평생 쓴 1,000여곡의 무려 1/3에 해당한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그가 기숙학교 시절 가입한 ‘빌둥(Bildung - ‘전인격적 교양’이라는 의미의 독일어) 동아리’를 통해 많은 문학작품을 접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엘리트학교의 이 동아리는 나중에 빈의 유력인사들을 배출하여 슈베르트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1815년 슈베르트는 또 다른 운명적인 친구 프란츠 폰 쇼버를 만난다. 쇼버는 역시 귀족가문 출신으로 기숙학교가 아니라 신학교를 다녔지만 ‘빌둥 동아리’와 가까워져 나중에는 오히려 슈파운을 대신하여 동아리의 리더가 되는 인물이다. 지적인 슈파운과 달리 쾌락적 성향의 쇼버는 당시 교사생활

에 지쳐있었던 슈베르트에게 교직에 답답하게 ‘묵여있는’ 슈베르트의 탈출구였다. 슈베르트는 급기야 1816년 12월부터 쇼버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하는데, 슈베르트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슈베르트는 쇼버를 통해 당시 저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요한 미하엘 포글을 사귀게 된다. 이후 슈베르트의 음악성에 감동한 포글은 슈베르트를 알리려고 평생 노력하였다. 1817년 8월 쇼버의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었던 슈베르트는 다시 꿈쩍이 싫어했던 아버지의 학교로 돌아가지만, 결국 1818년 초여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 때마침 하이든을 고용하였던 아이젠슈타트의 에스테르하지 공작의 먼 친척이었던 갈란타의 에스테르하지 공작이 여름동안 켈리츠(지금의 슬로바키아의 켈리에조우체)의 별장에 머물

Franz Schubert 1797-1828  
Trios op.99 & 100

2CD/ 1h 39mn 18s  
HMC902002.03/ January 2008

Trio Wanderer Ensemble, Primary Artist





**Franz Schubert**  
**Der Hirt auf dem Felsen ("Wenn auf dem höchsten Fels ich steh"),**  
 for voice, clarinet (or cello) & piano, D. 965 (Op. posth. 129)

BEVERLY SILLS and friends  
 Works by Adam · Arne · Bellini · Bishop · Caldara · Donizetti · Handel ·  
 Lehár · Massenet · Moore · Offenbach · Schubert  
 March 1, 2007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UPC: 00028947763048

면서 10대의 두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단기간의 음악교사를 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와 불화가 심해진 21살의 슈베르트는 생전 처음 빈을 떠나 200km 떨어진 켈리즈로 주저 없이 떠났던 것이다(참고로 6년 후인 1824년에도 여름교사로 두 딸을 가르치게 되면서 막내딸 카롤리네와 사랑에 빠져 탄생한 곡이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인 ‘**피아노 환상곡 F단조 D940**’이다). 켈리즈에서 돌아온 후 이번에는 기숙학교 친구 마이어호퍼의 집에 얹혀산다. 이렇게 슈베르트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악보를 팔아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하였지만, 1820년에 들어서면서 빈의 각계에 포진해 있던 엘리트 친구들의 노력으로 슈베르트는 점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821년에는 전에 한 차례 기각되었던, 저명한 ‘악우(樂友)

협회’(1813년 창립된 음악가협회) 회원자격까지 얻는다. 비록 1824년 빈 궁정악단 부음악감독직에 지원하였다 떨어지긴 하였지만, 슈베르트는 1821년부터 1825년까지 점차 명성을 쌓아갔다. 이 당시 악우협회 연주회 통계를 보면, 로시니에 이어 슈베르트가 2위에 기록될 정도였는데, 이는 곧 모차르트나 베토벤보다도 슈베르트의 작품이 더 빈번히 연주되었다는 의미다. 다만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부유한 후원자의 지원을 받았지만, 슈베르트는 겨우 출판 및 공연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을 뿐이다. 슈베르트는 1826년부터는 악우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악계의 영향력 있는 핵심인사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하여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역시 슈베르트의 성공가도의 뒤에는 어두운 슈베르트가 있었다. 슈베르트가 성인이 되기 직전(1815-17년)에는 그에게서 조울증 징후를 읽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밝은 슈베르트와는 달리, 어두운 슈베르트는 자기절제가 안되고 술과 담배에 찢어 광란을 부리며 주변을 불안하게 하였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악동 소비의 영향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한 ‘슈베르티아데’의 뒷풀이로 슈베르트를 흥청거리는 빈의 밤의 세계로 이끌었다. 슈베르트는 1822년 말 매독에 감염되고 이 악영향으로 울증은 더 증폭되었다. 생애 마지막 6년 동안 슈베르트는 1825년을 제외하고는 자주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다. 끝내 슈베르트는 1828년 11월 19일 오후 3시에 절명하였다. ‘신경열(Nervenfieber)’이 공식 사인으로 기록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매독은 부끄러운 질병이기에 친구나 가족들 모두 숨기려고 한 결과였다. 친구 슈파운은 슈베르트가 마지막 며칠 동안 겪곤 했던 정신착란 증세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다’고 적고 있다. 소프라노와 클라리넷, 피아노로 편성된, 슈베르트의 마지막 독창 가곡 ‘**바위 위의 양치기(Der Hirt auf dem Felsen)**’(D956)에는, 절벽(Felsen)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협곡만큼 사랑과 기쁨과 희망은 멀어져가지만, 외

로운 양치기는 봄이 오면 다시 방랑할 ‘준비’를 한다는 가사가 있다. 슈베르트가 천국을 향한 방향의 여정을 준비하는지 클라리넷은 우리 마음의 깊은 협곡에서 메아리가 되어 심금을 울린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요르단 강, 그리고 광야 - 나를 만나는 곳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제 갈릴래아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갈릴래아 호수를 빠져나와 흘러 내려 가는 하부 요르단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 요르단 강은 사해에서 끝이 납니다. 갈릴래아 호수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215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사해는 -430미터 정도에 있으니 낙차가 약 200미터가 되지요. 굽이쳐 내려가는 하부 요르단 강은 전체가 250미터 정도의 길이인데 직선거리로는 105킬로 정도 됩니다. 갈릴래아 호변도시인 티베리아스에서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르단 강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개신교 찬송가에 “요르단 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구절이 유명해져서 ‘요르단 강 건너다’는 표현이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표현인 것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바야흐로 요르

단 강을 건너 주님이 약속하신 땅 -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긴 고생 끝에 비로소 쉴 수 있는, 젓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에 도착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 동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요르단 강 동쪽 건너편에는 현재 요르단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래아 호수가 지역을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철조망들이 쪽 길을 따라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경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르단 서안지구, 또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이 요르단 강 서쪽,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곳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혹은 팔레스타인 도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및 도시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던 골란고원의 정착촌처럼 이곳에도 이스라엘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착촌 마을이 몇 군데 있고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키부츠 농장들이 몇 군데 있지만,

갈릴래아 호수 주변에서 보던 마을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 기준을 ‘벧산’이라는 마을로 둡니다. 이 마을을 지나서 약 5~10분정도 후에 검은소 비슷한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이 서안지구로 들어가는 ‘체크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지나 계속 내려가다 보면 물 많고 푸르름이 가득했던 지역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땅이 점점 건조해지고 능선들의 머리숱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의 나라이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심한 부분이 고도차입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해수면 기준 -215미터에 있고 한 시간을 북쪽으로 달리면 해발 2814미터의 높은 산을 마주하는 한편, 남쪽으로 2시간 남짓을 달리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430미터의 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과 서쪽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40분이 소





물 많은 요르단 강



요르단 강에서 예식하는 정교회 신부님들



요르단 강 세레터

요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도시이고 사해는 -430미터이니 고도차이가 1200미터가 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타는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순례를 할 때 그렇게 버스를 오래 타지도 않는데 버스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도차이가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그런지 세계에 흩어져서도 잘 적응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르단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

치한 강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인 사해를 만나기 직전인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장소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장소는 요르단 강 동편입니다. 기념 성당들, 유적터들은 현재 요르단 국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역대 교황님들도 그곳을 방문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카사르 알 야후드'라는 사해 인근의 요르단 강을 개방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갈릴래아 호수 인근의 요르단 강을 많이 순례하곤 했습니다.

요르단 강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규모에 깜짝 놀라고 그 색깔에 두 번 놀랍니다. 강폭이 5미터 정도이니 이것은 강이 아니라 개울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강물의 색이 누렁기에 더 보잘 것 없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이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가득해집니다. 수확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다(여호 3,15) 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강폭이 1km 정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의문이 가득하죠. 저 또한 그런 의문과 조금은 실망감이 교차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내리던 2013년에 요르단 강 본연의 모습과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비 때문에 갈릴래아 호수가 차올라 인근 농지가 침수 위험에 빠지게

되어 이스라엘 정부에서 갈릴래아 호수 남단의 보문을 열었는데, 순식간에 몇십 미터가 혹 차올라서 접근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엄청난 강물을 그 때 이후로 본적이 없었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수님 때의 세례는 머리까지, 몸 전체를 다 담그는 침수의 형태입니다. 정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요르단 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순례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이곳에서 세례갱신식을 합니다. 차가운 요르단 강물이 이마를 타고 흐르면 마음 깊은 곳까지 씻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물은 예수님이 담





유다광야



꽃핀광야

그셨던 물이기에 더 감동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보내지십니다. (마르 1,12) 우리도 사해 맞은편 유다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은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시며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한적한 지역을 찾아 가서 우리는 40분 정도를 묵상해 봅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차로 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깊은 지역까지 갈 수는 없고 도로가 있는 지역을 낮에 갈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용감히 오가는 사륜구동의 자동차들도 가끔 보이지만 광야 탐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액티비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지역을 찾아서 안전하게 이동하여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떠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변할 것이 있을까요? 사방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로소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소리에 맞춰서 내 숨소리도 들리고, 내 발자국 소리도 들립니다. 머리 위로는 태양과 구름이 있는 하늘이 높게 자리 잡고 있고, 발 밑으로는 자갈과 모래 그리고 바위로 만들어진 구릉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40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지 ‘사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막은 죽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드문드문 풀이 자리잡고 삽니다. 우기에는 초록색 풀들이 보이기도 하고 꽃도 보이기도 합니다.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던 어느 해, 신자들을 모시고 광야의 메마름을 묵상하러 갔더니 꽃이 가득해서 묵상은 커녕 꽃밭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서 건강에 위협이 될까봐 단단히 무장(?)하고 30분만 간단히 묵상하고 가자고 한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시기는 파스카 절기(4월 초중순)인데, 이때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그들

이 느낀 목마름이 그들이 느낀 더위가 어땠을까 감히 상상을 해 봅니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이야기 하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봅니다. 🙏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오만과 편견』에서 배우는 덕의 자리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 덕은 배우는 능력에 자리한다

성주관을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는 며칠의 날들은 눈부시게 화창했습니다. 눈부신 날들이 시작되기 전, 성 토요일의 아침에는 봄비가 왔습니다. 봄비와 함께 벚꽃잎들이 하얗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마음을 채웠을 때, 느긋하게 학교 곳곳을 산책하며 떨어진 벚꽃이 마치 강물처럼 꽃길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청명한 날씨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들은 처연하기보다는 아름답고 장해보입니다. 봄비에 씻기고 바람에 말려지고 햇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간간히 발길이 닿은 벚꽃잎들이 분홍빛 물을 바닥에 들이는 것을 바라보니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떨어진 벚꽃의 아름다움을 향유한 며칠은 마음에 위안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진 것을 바라보며 자신

의 일들 다한 사람이 아무 미련 없이 빈손으로 떠날 때 보여주는 귀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근사하게 떨어진 꽃잎들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비록 부족함이 있다하더라도 이뤄내고 애쓴 것에 대해 담담함과 겸허함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긍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면, 그 시간에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화양연화’의 순간에 내내 집착하거나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너무 오래 아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벚꽃이 피고 져고, 모르는 사이에 나무에는 싱그러운 새순이 오르고, 라일락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봄은 또 다른 절정으로 향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온전한 변화들, 이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그러한 순리를 감지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응답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맺는 열매를 덕



《Pride & Prejudice (2005)》  
2h 9min / Drama, Romance / Movi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은 지속성과 항상성을 필요로 합니다. 덕을 좋은 품성이자 습성이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시에 완고하고 경직되거나 정체되는 것을 거부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덕은 깨달음과 변화에서 옵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깨달음과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덕의 도야는 이미 가진 것, 익숙해진 것을 지켜 내거나 그것을 흘트리는 것을 삼가는 것만이 아니라, 모험을 감행

하고 여전히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역시 의미합니다. 그래서 덕은 늘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깃들입니다. 그리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인정하고 변화 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는 진실성과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오만’과 ‘편견’을 넘어 덕스러운 만남으로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들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많은 장점과 덕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덕성들이 때로는 오히려 상대를 오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난 엘리자베스가 지닌 ‘편견’과 도덕성과 자존감이 강했던 다아시가 가진 ‘오만’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망쳐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정한 훌륭한 이미지가 가진 장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긋난 길을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볼 수 있고, 새로 배울 수 있는 데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속내를 들려주는 아래의 대목을 읽으며 독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녀의 변화와 성장을 대하게 됩니다.

“그녀는 두 시간 동안 눈을 뜨고 누워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했다. 그가 싫은 것은 분명 아니었다. 싫은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그에게 혐오라고 할 만한 감정을 품었던 옛날을 부끄러워했다. 그의 훌륭한 인품을 확실하게 되면서 일어난 존경심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다른 감정들과 충돌을 일

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존경심은 어제 들었던 호의적인 증언들에 의해 좀 더 다정한 성격의 감정으로 변하고, 그의 기질을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씨에게 호의를 갖게 된 데에는 존경과 존중을 넘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한때 그녀를 사랑한 데 그치지 않고 여전히 깊이 사랑해서, 그녀가 그토록 불쾌하고 지독하게 그를 거절하고 부당하게 비난한 걸 용서한 데 대한 감사였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외면할 줄 알았던 그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교재를 이어나가 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고, 자신들 둘만이 관련된 일에 서툴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어색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녀의 일행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그녀를 동생에게 기꺼이 소개했다.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니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함께 솟아났다. 그것은 사랑, 열렬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분명했다. 이렇듯 엘리자베스가 받은 인상은 기분 나쁜 것과는 거리가 먼 고무적인 종류의 것이었지만, 그 정체를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그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다만 그녀가 알고 싶은 것



《Pride and Prejudice》

5h 27min / Drama, Romance / TV Mini-Series(1995)

은, 자신이 그의 행복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어느정도 바라고 있는지,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 있는 듯 한 그 매력의 힘을 발산해 그의 구애를 되살리면, 두 사람의 행복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었다.”

한편,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한 후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대목에서는 그 진실함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저의 태도, 제가 썼던 모든 표현이 오랫동안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비난은 너무도 정곡을 찔러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좀 더 신사답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마 짐작도 못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정당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지만요. (...)

저는 평생토록 윤리적 원칙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배웠지만,

성격을 올바르게 고치라고 배우지는 못했어요. 좋은 원칙들을 배웠지만, 그걸 오만과 자만 속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랬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제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더없이 유익했어요. 당신으로 인해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에게 가면서, 당신이 저를 받아들 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쁨을 줄 만한 여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나의 자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작품의 시작에서도 여러모로 매력적인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소설의 끝에 다가가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함께 덕 있는 사람 사이의 가장 깊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관계 안에서 성장 시키는 덕을 배운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울 줄 아는 그들의 덕이 사랑을 지키고 성장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은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Cornerstone



기사 갤러헤드, 보스와 함께 거룩한 잔을 찾아낸 퍼시벌을 묘사한 에드워드 번 존슨의 태피스트리  
(The Vision of the Holy Grail to Sir Galahad, Sir Bors, and Sir Perceval. Wool and silk on cotton warp / Birmingham Museum and Art Gallery)

**성배(聖杯, 영어: Holy grail)**

거룩한 잔, 또는 신성한 술잔은 문학 작품과 일부 기독교 전승에 등장하는 성물(聖物)로서,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던 술잔으로써 기적의 힘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전설에 따라 컵, 접시, 돌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며, 그 소유자에게 행복, 영원한 젊음, 무한한 부를 가져다주는 성물로 묘사된다. 서양권에서는 ‘성배’라는 단어 자체가 종종 이루어내거나 가질 수 없는 목표를 상징하는 단어가이기도 하다.

성배의 전설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물었다고 전해지는 아리마태아의 요셉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아서 왕 전설이다. 로베르 드 보롱이 쓴 《아리마태아의 요셉(Joseph d'Arimathie, 12세기 후반 작품)》에 따르면,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예수로부터 거룩한 잔을 선물 받고 그레이트브리튼 섬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토대 삼아 후대에는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그 피를 거룩한 잔에 받았다는 것과 그레이트브리튼 섬에서 거룩한 잔을 지킬 수도자들을 임명했다는 이야기 등이 생겨났다.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서 왕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크레티앵 드 트루아(Chrétien de Troyes)의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켈트족 신화 속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 가마술과 기독교 전설이 융합되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위키백과)

**성작(聖爵, 라틴어: calix, 영어: chalice)**

가장 귀중한 제구(祭具)의 하나로 포도주를 담은 잔. 미사 중 성작에 담긴 포도주는 성변화(聖變化)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혈로 변화된다. 최후 만찬 때도 예수는 잔을 사용하셨고,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당시 피로 변화시키셨다. 성작은 수세기 동안 귀중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유리가 매우 귀중한 재료였기 때문에 유리로 만들다가 3세기경부터 금과 은만으로 만들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각국 주교회의의 결의에 따라 고상하고 단단한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나 성작의 내부만은 반드시 금으로 도금해야 한다. 사제는 누구나 다 성작을 축성할 수 있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12세기의 대관식 성작(또는 성 레미지오의 성작)  
(The Coronation Chalice, also known as the Chalice of Saint Remigius, 12th century)

### 티나씨의 티비보기

## 아카이빙 TV, 과거의 재발견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교회 동향과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주초에는 전국 교구 주보를 둘러보곤 한다. 디지털 시대여도 사람들의 손에 직접 가 닿는 것은 역시 아날로그 매체 이기에, 주보들은 오늘날 교구의 관심사와 신자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한다.

그 가운데 최근 여러 교구에서 부각되는 소재는 교구 역사와 유물이다. 역사관을 조성한 교구들은 물론, 다른 교구들도 오래된 성당의 미술품들을 고화질 사진으로 남겨 두거나, 구교우들이 간직한 유물과 사진들을 공개 수집하고 있다. 주보에 소개되는 유물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은 독자에게 신기한 시간여행의 즐거움을 안겨 준다. 자료 수집과 관리를 뜻하는 ‘아카이빙’이 교회 안에도 활발한 것이다.

일상 업무에서는 1980년대 한국 교회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행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많아진 시간에 ‘주교회의 회보’ 텍스트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

년 기념 사목회의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추진 경과, 정진석 추기경님을 주축으로 한 교회법전 번역 작업, 주요 결정의 사유와 맥락을 적은 회의록까지. 그 안에는 오늘 한국 교회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짐작할 단서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창고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아카이빙의 흐름은 특히 공중파 TV에서 뚜렷하다. ‘선을 넘는 녀석들’, ‘역사저널 그날’처럼 3.1 운동 100주년에 더 각광받은 역사 프로그램과 그 파생작들은 앓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사랑받아 왔다.

대중의 기억에 생생한 현대사에 대한 접근도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는 1979년 12.12 사태를 다룬 토크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992년 휴거 사태의 당사자들에게서 어려운 고백을 이끌어낸 다큐멘터리 ‘모던 코리아’를 인상깊게 봤다. ‘아카이브 K’, ‘송큐멘터리 백투더뮤직’ 등의 대중음악 다큐멘터리는 2010년대 말 유튜브에서 유행한

이른바 ‘온라인 탐골공원’, 곧 1990년대 인기 가요 프로그램의 재발견에 힘입은 듯하다.

위 프로그램들의 단골 소재는 시청각 자료가 비교적 잘 보존된 20세기의 사건들이다. 대하 사극은 고정 팬층이 보장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고, 간접광고가 어려워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웠던데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간 출장 촬영은 방역의 부담을 수반한다. 반면 1~2회 단위로 완결되는 근현대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지적 욕구에 부응하면서 제작비 부담도 덜하고 사료 확보도 용이하다. 특히 케이블과 종편 채널의 도전이 거센 지금, 선발주자인 공중파 방송국의 자료실은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차별화된 보물창고로 각광받고 있다.

아카이빙 프로그램의 유행은 정보 과잉 시대의 피로감과 해외 촬영이 어려운 상황 탓인지도 모른다. TV, 특히 공중파 채널이 고연령 세대의 플랫폼이 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래도 옛것들에 대한 21세기 방송의 접

근은 오래된 새로움을 보여준다. 형태적으로는 핵심 주제어를 강조하는 파격적인 인포그래픽, 방송인들의 재연 에피소드와 실제 자료영상을 조화시킨 연출, 무거운 주제에 흥미를 갖고 접근하도록 돕는 토크쇼 콘셉트를 들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대중이 익히 아는 굵은 줄거리의 이면에서 무수한 조연들을 발굴하는 성실함과 새로운 맥락을 읽는 참신함이 돋보인다.

위기와 역경의 시대는 세상을 움츠러들게도 하지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간도 되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계기도 된다. 성경의 저자들이 바빌론 유배와 귀환, 왕국의 재건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남겨 후세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라떼(나 때)는 말이야”의 유혹을 피하고 겸허하게 오늘을 긍정하며 다가올 시간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다면 옛이야기들도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

## 성미술 이야기

#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정용모 신부,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이다. 이 시기의 자연은 다른 계절보다도 더욱 싱그럽다. 주변의 녹음을 둘러보면 때로는 눈이 부실 정도이다. 하느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생명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5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하여 지낸다. 구세주의 어머니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인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본받기 위해 정한 성월이다.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여 그 말씀을 따라 한 평생 충실히 살았다. 이제 천상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도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준다.

일상에서 주변을 눈여겨 살펴보면 하느님의 숨결과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알려주는 성사와 같다. 세상의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다. 자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해 주고 끊임없이 돌보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형상 중의 으뜸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모자상이다. 한결같이 모자상을 그리고 그린 화가가 있다. 백영수(프란치스코, 1922-2018) 화가는 한 평생 동안 가정과 가족, 모자상 등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아이를 엮고 있는 풍경은 언제나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백영수(1922-2018) | <성모자> 2018년 | 유리화  
호원동성당 | 의정부

백영수(1922-2018) | <성프란치스코> 2018년 | 유리화  
호원동성당 | 의정부

화가가 변함없이 모자상을 그린 것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화가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혼탁한 이 세상과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화가는 귀국하여 의정부 골목 동네에 터전을 잡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다. 2018년, 작가는 집 가까운 곳의 호원동성당에 두 점의 유리화를 제작했다. 한 점은 <성모자> 유리화이고 맞은편에 있는 다른 점은 <성 프란치스코>이다. 두 유리화는 1980년대에 제작된 <창가의 모자>와 <새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성모자> 유리화에서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업고 있지만 얼굴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 창가에 있는 성모자 뒤편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고 새들이 즐겁게 논다. 성모자의 사랑과 풍경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성 프란치스코> 유리화도 새들과 노는 프란치스코를 단순하게 묘사하였다.

호원동성당에 있는 두 점의 유리화는 작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작한 것이다. 유리화가 완성되자 성당에서는 조촐한 축복식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는 병환 중에 있던 화가도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축복식이 있었던 그 다음 날, 화가는 조용히 하느님 품에 안기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가 살던 집은 오늘날 백영수 미술관으로 바뀌어 여전히 사람들을 맞이한다. 미술관에서는 유리화 <성모자>와 <성 프란치스코>의 원형이 되는 작품과 여러 미술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들 사이에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큰 사랑을 발견하고 가슴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 개인 후원: 전운주
- \* 단체 후원: 우리은행

###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 및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예비신자 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자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례성사 : 2021. 12. 19(주일), 13:30
- \* 주 레 :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 외 직장사목팀 사제단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2021. 6. 7(월)~12.11(토)
참고피정	2021.12.12.(주일), 09:30~16:00 (대면시 명동 영성센터, 비대면시 ZOOM이용 이용)
교리방법	애드워드(edwith)을 이용한 온라인 교리
교육비	50,000원
모집일시	2021. 4. 26(월) ~ 5. 21(금) 17:00
모집인원	선착순 70명
문 의	02-727-2078 / 010-4799-2078

# 2021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일' 제정 기념 신앙 수기 공모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



## 공모 자격

-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중
- 손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한 경험이 있는 조부모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 수도자, 사제 포함)

## 공모 일정

2021. 4. 11(주일) ~ 6. 6(주일)

##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이메일 및 우편 발송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www.isenior.or.kr](http://www.isenior.or.kr) 다운로드)
- ※ 그림은 교구청별관 1층 접수함에 직접 접수
- 이메일 : [isenior@hanmail.net](mailto:isenior@hanmail.net)
- 우 편 : 서울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2층 노인사목팀(우.04537)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www.isenior.or.kr](http://www.isenior.or.kr) 참조

## 문의사항

노인사목팀 02-727-2385~6

## 공모 주제

- 손자녀들과 함께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  
— 조부모 수기(신앙을 전달하면서 겪었던 체험, 사례 혹은 에피소드)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성장한 나의 신앙 이야기  
— 손자녀 수기/그림(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신앙이 성장한 체험이나 에피소드, 신앙을 전달받은 사례 등)  
예시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당에 갔던 추억, 함께 기도한 기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신앙이야기 등

## 작성 방법

- 수기 | A4 4매 이내 (※ 손글씨로도 응모 가능. 한글 프로그램 작성시 글자 크기 11pt, 줄간격 160%)
- 그림 | 어린이(2009년생부터 가능) : 8절 도화지(형식과 재료는 자유로움)

##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수상 금액
시랑상	어린이부터	각 1명(총 8명) 각 1,000,000원(총 8,000,000원)
밀음상	조부모까지	각 2명(총 16명) 각 500,000원(총 8,000,000원)
희망상	각 세대별	각 3명(총 24명) 각 300,000원(총 7,200,000원)

주최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 청소년국

# 흰당근 (Daucus Carota)

원래 야생당근은 유라시아를 막론하고 현재 익숙한 주황색이 아니라 흰색 혹은 옅은 색이 대부분으로 자생하고 있었다. 단맛이 아예 없고 쓴맛이 강했다. 흰당근은 잎까지 익혀 나물이나 샐러드로 먹는다. 감자 같이 파근과근한 식감이다.



### 기록

문헌상으로는 『재물보(才物譜)』와 『임원경제지』에 처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부터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당근을 말의 사료로 알고 사람들이 별로 즐기지 않았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뿌리가 주황색이었는데 이것이 전세계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 영양 및 섭취

당질과 카로틴이 풍부하다. 당질로는 설탕과 맥아당, 과당 등의 환원당을 함유해 감미가 강하다. 색소가운데 β-카로틴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100g당 비타민A가 1만 IU 이상 함유되어 있다.



매주 첫째, 셋째주 '명동보름장'에서 다양한 토종종자를 만나보세요. [www.isenior.or.kr](https://www.isenior.or.kr)

facebook.com/wrn.kr seoulwurinong www.wrn.or.kr







### Chalice

A chalice (from Latin calix, mug, borrowed from Greek κύλιξ (kulix), cup) or goblet is a footed cup intended to hold a drink. In religious practice, a chalice is often used for drinking during a ceremony or may carry a certain symbolic meaning.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